

2025년 2학기 한국역사의이해 레포트

경복궁 답사기

이름 : 오경환

학과 : 기계공학부

학번 : 20221144

목차

1. 탐방개요
2. 탐방 내용 요약
3. 역사적 의미 분석
4. 느낀점 및 비평
5. 결론 및 참고자료

1. 탐방 장소: 경복궁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1)

탐방 일시: 2025년 11월 1일

탐방 목적: 이번 탐방은 조선의 정치와 문화의 중심이었던 경복궁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조선 왕조의 통치 이념과 유교적 질서, 그리고 궁궐 건축이 담고 있는 철학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교과서로만 배웠던 조선의 궁궐 체계를 실제 공간에서 체험하며, 그 속에 담긴 역사적 의미와 현대적 가치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탐방 내용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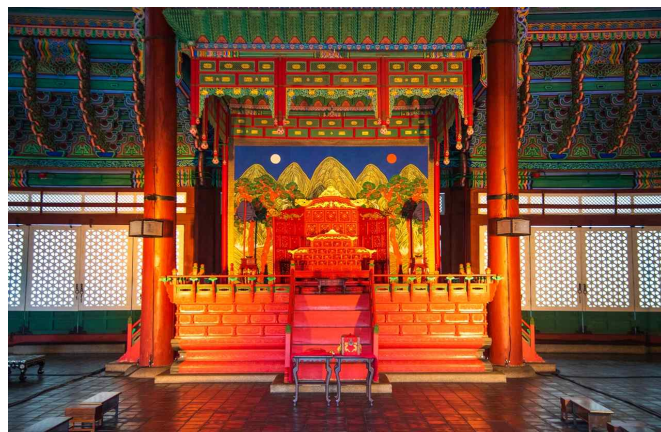
경복궁은 1395년, 조선 건국 후 태조 이성계가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세운 정궁이다. ‘경복(景福)’이라는 이름에는 “나라가 크게 복을 받는다”는 뜻이 담겨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대부분의 건물이 불타 사라졌고, 이후 오랫동안 방치되었다가 19세기 흥선대원군에 의해 대대적으로 중건되었다.

탐방은 정문인 광화문에서 시작되었다. 광화문은 조선의 권위를 상징하는 문으로, 그 너머로 근정전이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었다. 궁궐의 주요 건물들이 남북 축선상에 정렬된 것은

조선의 정치 질서와 왕권 중심 통치 구조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근정전(勤政殿)은 왕이 신하들의 하례를 받고 공식 업무를 처리하던 정전이다. 내부에는 왕이 앉던 어좌가 있으며, 뒤편에는 일월오봉도(日月五峰圖)가 걸려 있었다. 해와 달, 다섯 봉우리를 그린 이 그림은 하늘과 땅, 그리고 왕이 통치하는 세계의 조화를 의미한다. 이곳의 웅장한 기둥과 단청은 조선의 건축 미학과 정치적 상징성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근정전 뒤편에는 왕의 생활 공간인 강녕전과 교태전이 위치해 있었다. 강녕전은 왕의 침전, 교태전은 왕비의 처소로, 남녀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점은 당시 유교적 성 역할과 예법을 반영한다. 교태전 앞뜰에는 ‘아미산 화계’라는 아름다운 화단이 있었는데, 이는 왕비의 공간에 어울리는 평화로움과 조화를 표현한 조경이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공간은 경회루였다. 경회루는 연못 위에 세워진 누각으로, 외교 행사나 연회를 열던 장소이다. 넓은 연못과 그 위에 떠 있는 경회루의 모습은 조선의 미의식, 즉 자연과 인간의 조화(天人合一)를 그대로 담고 있었다. 물 위에 비친 누각의 모습은 마치 이상세계의 궁전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 근정전 내부의 어좌는 조선 왕조의 절대 권위를 상징하는 자리로, 그 뒤에 걸린 일월오봉도는 왕이 하늘의 뜻을 받아 세상을 다스린다는 천명사상을 시각화한 상징물이다. 해와 달, 다섯 봉우리가 조화를 이루는 그림은 조선이 추구한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세계관을 보여준다.



교태전은 왕비의 생활 공간으로, 그 이름부터가 ‘하늘과 땅의 조화’를 뜻하는 교태(交泰)에서 유래하였다. 이는 왕과 왕비의 조화를 통해 나라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조선의 유교적 세계관을 반영한다. 교태전 뒤편의 아미산 화계는 이러한 조화의 상징을 시각화한 공간으로, 계단식 정원과 굴뚝 장식은 조선 궁궐 조경 예술의 정수를 보여준다. 특히 굴뚝에는 십장생과 봉황 문양이 새겨져 있어 왕비의 복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회루는 조선의 미의식과 정치철학이 융합된 공간으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표현한 건축물이다. 연못 위에 세워진 누각의 모습은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가 공존하는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이는 조선이 추구한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사상을 공간적으로 실현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3. 역사적 의미 분석

경복궁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조선의 정치철학과 국가이념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상징물이다. 건물의 배치, 공간의 위계, 그리고 세부 장식 하나하나가 조선의 유교적 질서를 반영한다. 근정전 앞마당의 품계석은 신하들의 지위를 구분하기 위한 돌로, 왕 앞에서의 예절과 질서를 엄격히 유지하기 위한 장치였다. 이는 곧 유교 정치의 핵심 가치인 예(禮)와 위계질서를 보여준다. 또한 경복궁은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과 회복의 상징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에는 총독부 건물이 궁궐 앞에 세워져 민족의 상징이 훼손되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경복궁은 지속적인 복원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되살아났다. 이는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역사적 자존심과 문화 정체성 회복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경복궁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국민들이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느끼고 배우는 교육의 장이다. 전통복을 입은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데 어우러진 모습은, 과거의 궁궐이 현재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음을 상징한다.

4. 느낀 점 및 비평

경복궁을 직접 탐방하며 느낀 가장 큰 인상은 “시간이 겹쳐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었다. 조선의 왕들이 정치를 논하던 근정전 마당을 걸으며, 과거의 권력과 현재의 시민 문화가 공존하고 있음을 느꼈다.

건축물의 화려함 이면에는 왕권의 권위뿐 아니라 백성의 노동과 헌신이 있었다는 점도 인상 깊었다. 한편으로는 절대 권력의 공간이자 백성과 거리가 먼 곳이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드는 열린 공간이 된 것이 흥미로웠다. 이는 한국 사회가 역사 속의 권위를 시민의 공간으로 바꾸어온 민주주의적 변화의 상징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경복궁은 과거의 유산이 단순히 ‘보존’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와 소통하는 살아있는

역사임을 느끼게 했다.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조선의 정치 제도와 유교 문화가 단순히 옛 제도가 아니라, 여전히 한국인의 가치관 속에 일부 남아 있다는 점도 흥미로웠다.

5. 결론 및 참고자료

경복궁은 조선의 정치와 문화를 집약한 공간이자,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유산이다. 이번 탐방을 통해 궁궐의 건축미와 공간 구조가 단순한 미적 가치가 아닌, 조선의 정치철학과 질서를 구현한 결과물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과거의 권력 공간이 오늘날 시민의 문화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역사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비추는 거울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앞으로도 경복궁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국민 모두가 역사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배움의 공간으로 남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 공식 홈페이지
- 『조선왕조실록』
- 『한국 건축문화의 이해』, 국립중앙박물관, 2020
- 현장 안내문 및 해설사 설명